

조선

무엇이 조선업 주가를 이끌고 있는가?

2013. 7. 24

조선/기계
Analyst 박무현
02-3779-8967
bossniceshot@etrade.co.kr

연초대비 주가 상승률이 높은 순서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

연초 대비 한국 조선 4사의 주가 상승률은 KOSPI 200 지수 상승률을 5.9% 상회했다. 절대수익률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이 6.8%, 현대미포조선이 4.7%, 삼성중공업 2.6%, 현대중공업 -14.3%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조선업 주가가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여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업의 트렌드가 Low end에서 High end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선영역에서의 또 한번의 기술적 진화인 Eco-ship이다.

당사 리서치센터는 Eco-ship을 중심으로 한 상선시황 회복가능성과 중국 조선업 붕괴를 강조해왔으며 Tight Oil 등장으로 Offshore 영역의 위축을 예상해왔다. 이와 같은 논리의 결과로 지난해 말부터 현대미포조선과 대우조선해양을 강조해왔다. 현재 까지 YTD 주가 수익률은 예상대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이 조선 4사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선 영역에서 한 발 앞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현대미포조선과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이유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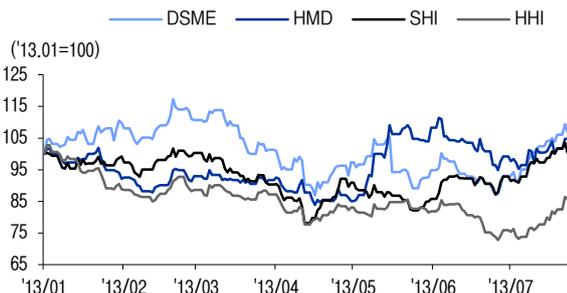
조선업 주가는 수주실적 자체가 아닌 Reference와 방향성이 결정

대우조선해양이 현재까지 가장 좋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수주실적은 조선 4사 중 가장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대우조선해양 주가 상승률이 가장 좋은 이유는 바로 수주실적 자체가 아닌 향후 방향성이 조선업 주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수주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도실적 즉, Reference이다.

한국 조선업체 중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먼저 Membrane type LNG선 해외 수주, ULCC 건조경험, ME-GI 엔진 탑재된 LNG선 수주, 16,000TEU급 이상의 대형 상선 인도, Arc 7 type Ice-class LNG선 수주도 달성했다. 향후 조선업 수주경쟁은 새로운 Reference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는 선박에 대한 Reference를 선점했으며, 조선업 분야 Frontier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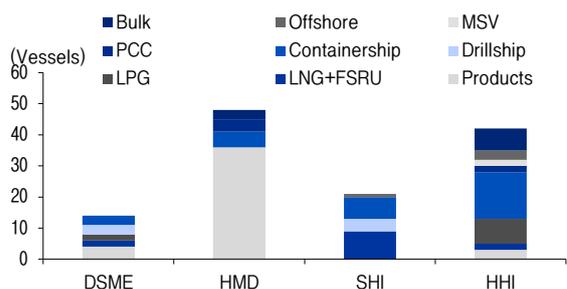
상선중심의 시황은 수주잔고도 금액기준이 아닌 토크기준, 양의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Eco-ship은 교체수요이라는 점과 체급이 다른 현대미포조선과 비교를 위해서도 척수 기준에 대한 비교가 더욱 중요해 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일급 조선소는 선가 상승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수주전략으로 수주가격과 토크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림1] Stock price of shipyards trends



자료: Bloomberg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Korean shipyard's new order trends



자료: Clarksons,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무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종목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
 업종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
 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Buy/ Hold/ Sell)에서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로 변경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적용기준(향후12개월)
Sector(업종)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Report(기업)	Strong Buy (강력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50% 이상 기대
	Buy (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15%~50% 기대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절대수익률 기준 -15%~15% 기대
	Sell(매도)	절대수익률 기준 -15% 이하 기대
	N.R.(Not Rated)	등급보류